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5년 3월 발행 (제 59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100엔 (배송료 포함 200엔)

나팔 HP: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권두 메시지 “주여, 주여”라 말하는 자’ 예레미야

◎간증 ‘안식일’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권두 메시지>

“주여, 주여”라 말하는 자’ 예레미야

이번에는“주여, 주여”라 말하는 자’로 메시지르르 전하러 합니다. 텍스트는 다음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7: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7:23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부분은 어떤 의미 놀라운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 내고 나 또한 기적을 할 사람은 매우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전혀 모른다. 저리 가라"고 말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런 기적을 할 수 없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 불안이 솟아나는 곳입니다.

도대체 여기서 질타 된 사람들의 문제란 무엇인가? 어떻게하면 우리도 같은 실수에 들어 가지 않아도 되는가 잘 생각해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여, 주여"**고 말해 사람들은 모두 꿈에도 그날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거절되는 것은 생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 내고 기적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때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날 그들은 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기독교인만 천국에 제대로 들어가있다. 그렇다면 이런 대단한 역사를 한 나는 하늘의 특등석에 들어갈 것 같다"고, 그런 기대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 그리스도에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모른다"**로 불리는다면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 영생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불뭇에 던져지는 것입니까? 그들은 웬지 무서운 결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대단한 착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교훈을 우리가 그들과 유사한 실수에 들어 가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열쇠는 상기 텍스트의 이전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7:15 ○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7:16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7: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7: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7:19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7:20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에는 **"거짓 선지자"**진술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쁜 나무이며, 좋은 열매를 맺게 수없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쁜 나무, 이 말은 **"주님, 주님."**하는 사람에 대한 질책 **"불법을 이루는 자들. 내게서 떠나 가라"**고 말씀으로 통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것을 통해 우리는 괴괴망측했다 **"주여, 주여."**라고 사람들의 수수께끼가 조금 풀려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이며, 게다가 그 열매가 나쁜 열매이다, 따라서 주로 질책 그날 **"너희를 전혀 모르는"**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임을 모른다>

이러한 것을 통해 알 교훈이있다. 거짓 선지자는 다른 특징이 있고 그것은 그들이 자신이 거짓 선지자이며,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두 자신 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 믿고있는 것입니다. 이 수의 알기 쉬운 예는 선지자 미가야 때의 일입니다. 다음을 보세요.

열왕기상 22:19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와 말씀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22:20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꺾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2:21 한 영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꺾이겠나이다

22:22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꺾이겠고 또 이루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22:23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22:24 ○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 하더냐

22:25 미가야가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이날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하고 왕의 사랑을 말하는 400 명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에 속지 속지있다 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미혹의 영에서 예언했다지만, 그들의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 되지 않는, 미혹의 영에 미혹되어 예언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지적했다 미가야를 후려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결코 자신이 미혹의 영에 따라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것을 이곳에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위 "주여, 주여."라고 사람들의 실수에도 통합니다. 그들은 왜 그날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자신 만만했던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현혹되어 깊이 현혹되어있어 국물만큼도 자신이 미혹의 영의 밑에 하나님 다름 아닌 영에 의해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거나 기적을 하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 것입니다. 이 것을 통해 거짓 선지자를 유혹 영의 미혹은 매우

강하고 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가 왜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라고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하나님의 영으로도 없고, 반대로 속이는 악령에 의해 예언과 귀신 쫓아 기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성령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나 표징에 대해 **"내가 너희를 전혀 모른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이 구절을 통해 하나 중요한 가르침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점이다. 미가야 때 400 명의 선지자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 그러나 실제로 그 예언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여, 주여."**라고 사람들이 한 예언도 귀신 쫓아도 기적도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졌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와 무관 한 악령에 의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의 끝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발생하다>

그런데, 이러한 **"주여, 주여"**하는 사람의 잘못은 현재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의 종말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예언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4: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종말의 시대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시대이며,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많은 미혹의 영이 귀신의 역사가 허용되는 시대입니다.

<착각의 교회, 라오디게아>

종말의 날 기독교인을 속이는 사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혹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훌륭한 예언의 그릇 귀신 쫓아 그릇 기적의 그릇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쪽같이 악령에 따라 역사를 실시하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생을 빼앗는다는 방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여 때 사탄은 그녀에게 맛있는 이야기, 즉 이야기, 돈벌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또한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며 믿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에 휩싸여 그 말에 속은 하와는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생명의 나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종말의 날 사탄의 기독교인에게 미혹도 같은 것입니다. 대단한 치유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을 만진 성경의 살아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그리스도인으로 레벨이 오른 등과 욕심에 휩싸여있는 사이에 사탄의 표적에 현혹 된 결과 영생을 잃게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 기독교인에게 올무는 악령에 의한 은사의 길로 질질 끌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미혹 된 교회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배울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나는 부자가 부자가 된,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공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자신은 풍부 교회, 풍부해진 교회라고 믿고있는 것입니다. 예언 이랑 귀신 쫓아든지 기적든지의 산물 풍부하고, 성경 지식으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있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이 라오디게아의 착각은 위의 "주여, 주여."라고 사람들의 착각에 통하는 것을 알고합시다. 이 교회는 분명히 이적과 기사와 은사는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그리스도는이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오디게아는 비정상적인 교회이며,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의 영 이신 성령을 쫓아 내고 대신 그리스도 이외의 영이 귀신에 의한 은사가 많고 풍부 교회입니다. 사람의 눈앞에는 훌륭한 은사 교회에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멸망의 직전에있는 것입니다.

상기 "실은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 벗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암시적인 말씀입니다. "치사"라는 원어는 다음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7: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죄에서 해방되지 않는 것을 한탄 "치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자신은 풍부하다,라며 그 열매, 하나님 앞에 죄의 중간에 있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천국에 두지 않을 수 있다 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전혀 모른다. 불법을 이루는 자들. 내게서 떠나 가라"고 거절했다 "주여, 주여."라고 자들에게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지 않는 이적과 기사>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코 일어나지 繪空事이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날 위험이 미리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눈으로 본다면 성공적인 영으로 미혹의 표적과 기적이 지금의 교회를 석권하고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무조건 믿는 받아 들일 것이 아니라 음미해야 합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의 일에 관해서 잘 알아두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7: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7:19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7:20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현재 부흥 운동의 그릇에는 많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인물이 많다는 것을 알고합시다. 많은 스캔들 사건, 형사 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담고 있으며 뭔가 신기한 일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것일까 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 후에 도착 가고,하면 변형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들떠 있어도 끝나는 곳에는 "주여, 주여"라며 그리스도에 "모른다"라고 버리지 않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일까요? 수수께끼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있으며, 거짓 선지자의 열매로 가득 차있어 그들이 따라 가서 우리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없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많은 미혹의 영의 작용이 허용되는 시대이며, 그 결과 그리스도 교회 곳곳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다" "대단한 은사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예언 영이 주어진"라고 말할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의 "주여, 주여"하는 사람처럼 끝까지 악령에 현혹되어 결과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도있는 것입니다. 이 것을 제대로 파악하자.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에 큰 세금자가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그날 미혹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믿어 버려,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잃는 사람이 매우 많다는 것을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경고를 결코 경시해서는 없습니다. 종말의 날 미혹의 영의 진실은 성공적이고 많은 기독교인은 그것을 완전히 信じ込み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합시다.

<악령의 홍수에 가지고 간다>

주님은 종말의 날에 대해 그것은 노아 때 같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4:38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24:39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24:40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4:41 두 여자가 맷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비유이며, 종말의 날에 성령의 홍수 귀신의 홍수가 교회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령의 홍수 "한 사람은 가지고 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것을 예언 한 것입니다. 지금은 홍수시이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미혹의 홍수에 삼켜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신이 임한 대단한 은사가 나타난 기꺼이 사람들은 실은 귀신의 홍수에 가지고 있으며, 사탄의 유혹에 매료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것 때문에 모두 그 영에 의한 혼란은 자신도 주위도 밝혀 질 것입니다. 완고하게되어서는 없습니다.

반대로 겸손하게 성령을 모시고, 미혹으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합시다.



금가루 부흥,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가?

간증 '안식일'

그리스도인 생활을 보내 게 상당히 시간이지나면서 최근 들어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은 수 있었으므로 증거를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테마로 내걸고 있었지만,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입니다. 예전에는 별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거의 의식 적이 없었습니다만, 단지 세례를 받고 얼마 되지 않은 때 지금은 이렇게 일요일에 예배에 가서 있지만, 만약 어떤 사정으로 일요일에 예배에 갈 수 없게 어찌나? 게다가 원래 일이나 가정 사정으로 일요일 다만 교회에 갈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걸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독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일까? 또는 구제되지 않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즉 내 마음 속에서 "안식일" = "일요일"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일요일에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라고 생각이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그것은 자신의 착각이 매우 있는 것은? 생각하게 되고,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에 대해 조금씩이지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렘넌트 교회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에 더해, 뒷면의 의미, 즉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관해서도 다소 비유의 의미가 사용되고 있고, 그 것을 이해함으로써 본래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되어갔습니다. 모처럼이므로, 성경 구절을 살펴 보자.

레위비 23:3 **옛새 동안 일을한다. 일곱째 날은 가장 엄숙한 안식일이며, 거룩한 집회의 일이다. 당신들은 어떠한 일도하지한다. 어디 살자도, 이것은 주로위한 안식일이다.**

여기에서 "일곱째 날"이라는 말이 있고, 그 후에 "안식"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것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일주일의 일곱째 날 = 일요일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도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 "온갖 일을 한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전 그대로 그대로 잡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출근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뿐 아니라 가사도 하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테이블의 의미로는 일주일의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말합니다

다. 그리고 관련 있는 말씀을 떠올려 했습니다. 벰후 편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 너희는 이 일사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주님 앞에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벰후 편지 3 장 8 절)**라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읽을 때, '하루'를 '천년'고 있는지에 무심코 눈이 멈추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곱째 날"이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6,000 년을 거쳐 7000 년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BC 의 처음부터 끝이 4,000 년 동안 AD 에서 계산하면 2,000 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있으므로 이를 합산하면 지금이 바로 7000 년, 즉 "일곱 하루 눈 "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과 '일'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좀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1:15 **옛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 칠 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민수기 19:12 그는 제 삼 일과 제 칠 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 삼 일과 제 칠 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상기에서 "안식의 날에 일하는 사람은 누군가 반드시 죽여야한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에엑?! 일요일에 일하는 경우 살해 버리는? 요리를하거나 청소를하는 것도 안돼? 일가의 남편과 주부의 사람은 힘들다!"라고 생각한 수도있었습니다. 하지만 훗날되어 그것은 "예"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셋째 날"은 AD 에서 세어 3,000 년째 때문에, 즉 "일곱째 날"과 같은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일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즉 "안식일"로해야한다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흠을 정화 물로 죄의 몸을 정결케"하는 것입니다. "죄는 매일 회개해서 괜찮아"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있는 "죄"는 단순히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에 대해 말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인가? 라고하면, "일곱째 날"에서 말씀 모독이 일어난다는 것을 12 절 말씀에서 암시하고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지옥은 없다 든가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은 만나지 않고 휴거되거나 연옥이 두 번째 기회가있다 등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교리는 "옛새 동안은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같이, 여섯째 날까지 거의 이야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이되면 여섯째 날까지 정통 교리가 이상한 교리로 변질 있어요! 따라서 오염을 정화 물 (성령의 비유)에서 죄를 깨끗하게합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섯째 날까지 전승 된 올바른 교리를 구부리 자 곧 그 이외의 교리를 말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에 기록 된대로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거다"라는 이 전해지고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인가? 아니, 아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만, "안식일"은 하나는 말 그대로 "일요일"이라는 것도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의 비유의 의미를 통해 그것은 바로 지금의 종말의 시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는 말씀의 신성 모독 순간이라는 사실에서도 현실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바로 그렇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폭 퍼져 버린 다빈치 코드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 해 아이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어디를 찾아도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일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거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통채로 삼켜 있거나, 혹은 그런 일을 펼쳐 버리거나 후 사후 빌어 먹을하게 되어 버리므로 주의 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있었다 "안식일"의 것을 내 나름대로 빙해 한 점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질문에 답변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 증거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언제나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추앙 바랍니다. 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